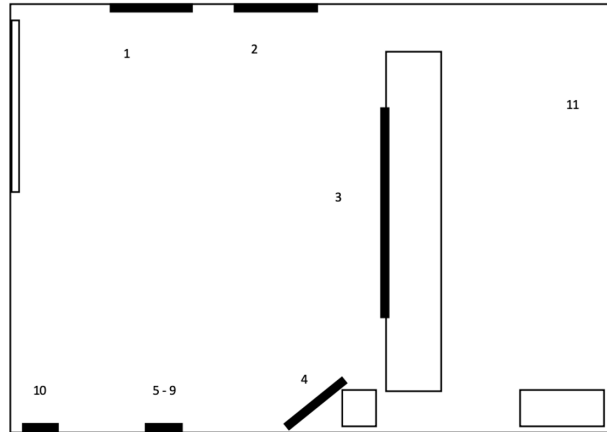


제시 시quel: 폭풍전야

2024.08.15~2024.09.04



1. **Asterisk**, Digital print on Ilford black and white archival paper, Dibond backing, matte acrylic glass, 2024, 61,2 x 61,2cm
2. **High Current**, Digital print on Ilford black and white archival paper, Dibond backing, matte acrylic glass, 2024, 61,2 x 61,2cm
3. **Memory**, 2024, Digital print on Ilford black and white archival paper, Dibond backing, matte acrylic glass, 2024, 105 x 70 cm
4. **Gilberto, 1988**, UV printed magnetic-backed ceramic tiles, 2024, 10 x 10 cm (each)
5. **Hi Mom/Hola Mamá (Built)**,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6. **Hi Mom/Hola Mamá (Street Life)**,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7. **Hi Mom/Hola Mamá (Nature)**,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8. **Hi Mom/Hola Mamá (Walk)**,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9. **Hi Mom/Hola Mamá (Self-Portrait)**,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10. **Sosta**, Digital print on Ilford black and white archival paper, Dibond backing, matte acrylic glass, 2024, 31,2 x 31,2 cm
11. **a long time before a tree is really a tree**, Single channel digital video, 17:35 mins, 1080p, 2024, 31,2 x 31,2 cm

제시 시quel (Jesse Siegel, b. 1984) 은 멕시코 칸쿤 출생으로, 벨기에 앤트워프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작업한다. 그는 비디오, 사진, 그리고 3D 렌더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작업한다. 그의 작품은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 전반에 퍼져 있고, 사회적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전지구적 체납 (global default)"과 관계된다. 작가는 정체성이 어떻게 특수성이 아닌 유사성으로부터 구축되는지를 탐구하며 칸쿤과 같은 "신도시(New Towns)"에 집중한다. 헤이그 왕립예술원(KABK)에서 아티스틱 리서치(Artistic Research)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전시를 선보였다.

인가회갤러리는 서울 이태원 소월로에 위치한 갤러리로 한국미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템포러리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실험적이면서도 컬렉터블한 작품이 돋보이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그리고 인가회갤러리는 윈도우 디스플레이 전시인 인큐(IN-CU)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예술적인 소통을 하고자 한다. 인큐는 '인가회갤러리 큐브(Cube)'라는 뜻과 인가회갤러리에서 (실험적 예술을) 인큐베이팅(Incubating)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전시는 아티스트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며, 시대 정신이 담긴 신선하고 실험적인 전시를 선보인다. 또한 아트 패트론 문화를 다지고자 노력으로, 동시대 미술사의 이해 및 아트 투어와 같은 컬렉터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가회갤러리는 '아트 러버'인 아티스트, 큐레이터, 평론가, 컬렉터와 갤러리스트가 함께 소통하며 한국 컨템포러리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하루가, 한시간이, 한번의 맥박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었고 아무런 특색도 없는 추상적인 것들로 변해갔다...”
W.G. 제발트 (W.G. Sebald), 『이민자들』 (1996)¹

《폭풍전야》는 제시 시겔 (Jesse Siegel, b.1984)의 지속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 최근 작품인 기억, 장소,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작품명 “폭풍 전야”는 폭풍이 허리케인이 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전시는 시각적 회고록(visual memoir)의 요소와 자연, 문화적 현상에 대한 리서치 기반의 탐구를 함께 엮어내었다.

<기억 사진 *Memory Photographs*> 시리즈 (2021-2024)는 창문, 창살, 다용도 전기함과 울타리 등 인공 환경의 여러 요소를 촬영하고, 이를 따로 분리하여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렌더링한 작품이다. 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에 시겔은 특정한 인식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일상적인 인공 환경(built environment)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23년 일본의 한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거주하며 그는 별표(Asterisk) 모양으로 테이핑 된 창문을 마주했는데, 이는 그가 어린 시절 거주했던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동일한 테이핑 방식이었다. 일본 그리고 멕시코에서 모두 그러한 테이핑은 다가오는 폭풍우에 대비해 유리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에서 보여지는 대담하고도 그래픽적인 이미지는 시겔의 개인적 기억 그 이상을 드러낸다. <기억 사진 *Memory Photographs*>의 이미지는 사진에 기반을 두어 시겔의 생생한 경험을 나타낸 반면,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조작된 이미지는 작가의 희미한 기억을 대변하고 있다. 그 결과물은 익숙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작업의 특성은 공유된 시각적 그리고 환경적 경험이 어떻게 단절, 인식 혹은 소속감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겔의 확장된 탐구와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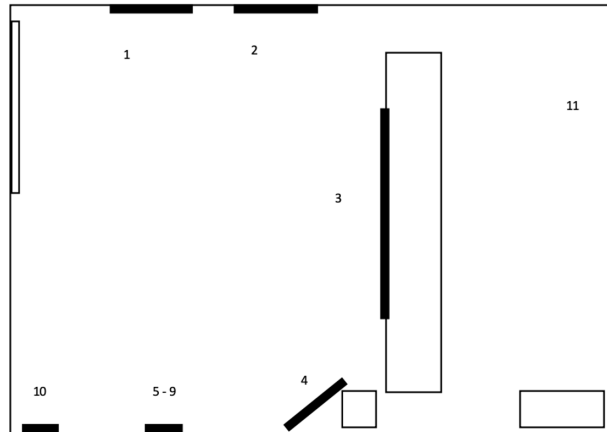
<길베르토 *Gilberto*> (2024)는 시겔이 어린 시절 칸쿤에서 경험한 허리케인에 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뒷면에 자석이 붙어있는 세라믹 타일에 상업용 인쇄 기술을 이용해 1988년 발생한 허리케인의 레이더 이미지를 인쇄한 것이다. 작품을 이루는 64개의 타일은 개별로 판매됨에 따라 하나씩 제거되면, 전체적인 이미지는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작품의 형식은 칸쿤의 관광지에서 있는 상점과 시장에서 판매되는 값싼 기념품의 자석 배치를 참조한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상징적인 도자기 델프트 도기(Delftware)와 도자기 생산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오카와치야마(おかわちやま) 마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관광 기념품과 상업용 디자인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시각적 모티브와 형태가 대상(referents)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이 맘/홀라 마마 *Hi Mom/Hola Mamá*> 시리즈 (2024)는 작가와 그의 어머니 안니타 브라운 (Anita Brown)이 협업한 프로젝트이다. 이 작품은 하루에 걸쳐 촬영된 것인데, 브라운이 칸쿤에서 촬영한 사진과 시겔이 네덜란드의 알메르(Almere)에서 촬영한 사진이 한 쌍을 이룬다. 작가와 그의 어머니는 일회용 일포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고, 산책을 하며 필름 롤을 소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두 사람의 연결을 강조할 뿐 아니라, “신도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알메르와 칸쿤은 모두 1970년대에 건축된 계획도시이며, 이 작품은 그들의 이상적인 상업적 비전과 실제 현실 간의 불일치를 그려낸다. 일상적인 소통의 과정에서 디지털 이미지가 점점 일시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하이 맘/홀라 마마>는 이미지의 물질적 존재성, 이미지와 기억, 장소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미디어와 시간성이 맺는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나무가 되기까지의 오랜 시간 *a long time before a tree is a really a tree*> (2020)은 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겪은 경험과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을 다루는 시적이고 명상적인 작품이다. 이 영상 작업은 시겔의 아파트 내부를 비네팅(vignette)한 영상과 영상 속 스크린에서 재생되는 또 다른 영상이 결합되어 있다. 이에 더해 작가는 보이스오버를 통해 새로움과 소속감, 그리고 기억과 일상의 리듬을 정의하는 그들(새로움, 소속감)의 역할을 성찰한다.

폭풍과 기상이변을 통해 공유되는 경험처럼, 《폭풍전야》에서 보여주는 시겔의 작품들은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평평하게 하고 쉽게 대체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글로벌리즘의 시스템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겔의 탐구는 전통 혹은 차이보다는 새로움과 동일성에 기반을 둔, 공통된 시각적 경험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강조한다. 시겔의 작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컨텍스트와 현대 삶의 파편에서의 경험과 정체성의 불연속성을 그려낼 뿐 아니라, 작가는 또한 인식, 관조, 그리고 궁극적인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¹ *이재영 역, 『이민자들』 (창비, 2019) 번역 참조 | 전시서문 국문 번역: 오지은

Jesse Siegel: Tropical Depression

August 15, 2024 ~ September 04, 2024



1. **Asterisk**, Digital print on Ilford black and white archival paper, Dibond backing, matte acrylic glass, 2024, 61,2 x 61,2cm
2. **High Current**, Digital print on Ilford black and white archival paper, Dibond backing, matte acrylic glass, 2024, 61,2 x 61,2cm
3. **Memory**, 2024, Digital print on Ilford black and white archival paper, Dibond backing, matte acrylic glass, 2024, 105 x 70 cm
4. **Gilberto, 1988**, UV printed magnetic-backed ceramic tiles, 2024, 10 x 10 cm (each)
5. **Hi Mom/Hola Mamá (Built)**,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6. **Hi Mom/Hola Mamá (Street Life)**,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7. **Hi Mom/Hola Mamá (Nature)**,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8. **Hi Mom/Hola Mamá (Walk)**,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9. **Hi Mom/Hola Mamá (Self-Portrait)**, Black and white dyptich giclee print on Hahnemühle Fine Art Baryta, 2024, 10x15cm
10. **Sosta**, Digital print on Ilford black and white archival paper, Dibond backing, matte acrylic glass, 2024, 31,2 x 31,2 cm
11. **a long time before a tree is really a tree**, Single channel digital video, 17:35 mins, 1080p, 2024, 31,2 x 31,2 cm

Jesse Siegel (b. 1984 in Cancun, Mexico) based in Antwerp (BE) and Amsterdam (NL). Jesse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working with video, photography, and 3D rendering. His practice is concerned with the spread of a "global default" across built environments and mirrored in social constructs. He focuses on "New Towns" like his hometown of Cancun, exploring how identities are constructed not from uniqueness, but sameness. Jesse holds MA in Artistic Research from the Royal Academy of Art (KABK), The Hague (NL). He has previously exhibited his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gahee Gallery, located in Sowol-ro, Itaewon in Seoul, features curated exhibitions that introduce global contemporary art with a focus on the work of Korean artists. Ingahee partners with artists to present exhibitions that highlight experimental yet collectible works in various media. Ingahee provides artistic inter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In-Cu, a window display exhibition. In-Cu has two meanings: 'Ingahee Gallery Cube' and 'incubating (experimental art) at Ingahee Gallery.' This exhibition is always artist led, and presents a fresh and experimental installation. Additionally, in an effort to solidify the Art Patron culture, Ingahee provides programs and tours for art collectors to foste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Ingahee Gallery seeks to present a new 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Korean culture and arts by connecting with 'art lovers,' including artists, curators, critics, collectors and gallerists.

“...day by day, hour by hour, with every beat of the pulse, one lost more and more of one’s qualities, became less comprehensible to oneself, increasingly abstract.” – W.G. Sebald, *The Emigrants*, 1996

Presented at Ingahee Gallery, *Tropical Depression* is an exhibition of recent work by Jesse Siegel. The exhibition contains four distinct bodies of work tied together by Siegel’s ongoing investigations of memory, place, and cultural identity. Taking its name from the rotating storm systems that develop into hurricanes, *Tropical Depression* interweaves elements of visual memoir with research-driven explorations of natural and cultural phenomena.

Siegel’s *Memory Photographs* series (2021-2024) depicts windows, grates, electrical utility boxes, fences, and other elements of the built environment, which he has photographed, isolated, and rendered anew through 3-D modeling software. In 2021 during the lockdown of the Covid-19 pandemic, Siegel started taking pictures of mundane elements of the built environment that evoked recognition and specific memories. For instance, the distinctive taped window of *Asterisk* he encountered during a 2023 artist residency in Japan reminded him of nearly identical taping he saw during his youth in Cancún, Mexico. In both cases, the tape is intended to reinforce glass against oncoming storms.

However, the bold, graphic qualities of the images come to represent more than Siegel’s particular memories. While the use of photography roots the images of *Memory Photographs* in Siegel’s lived experience, his manipulation of the source material through the intermediary modeling software renders the elements as ghostly stand-ins for memory. The resulting work is familiar, yet elusive, and these qualities hint at Siegel’s larger explorations of how shared visual and environmental experiences can foster disconnect, recognition, or belonging.

Gilberto (2024) depicts the titular hurricane, which was a defining moment in Siegel’s early life in Cancún. The piece adapts commercial printing technology to apply archival radar imagery of the 1988 Hurricane to ceramic tiles with magnetic backings. As the sixty-four individual tiles are purchased and removed, the overall image degrades and fades away. The display references the presentation of magnets commonly available as trinkets at tourist shops and markets in Cancún. The piece also takes inspiration from Siegel’s encounters with Delftware, the iconic blue and white pottery in the Netherlands, and Okawachiyama Village, a popular tourist site in Japan known for its pottery production. In both cases the volume of production of tourist souvenirs and commercial designs has rendered the visual motifs and forms nearly indistinguishable from their referents.

Siegel’s *Hi Mom/Hola Mamá* series (2024) is a collaborative project between the artist and his mother, Anita Brown. Taken over the course of a single day, the works pair together photographs taken by Brown in Cancún with photographs by Siegel from Almere, Netherlands. Siegel and his mother used disposable Ilford film cameras, and the two exposed their rolls of film over the course of a single walk. The project highlights not only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individuals, but the differences to their approaches based on the conditions of their respective “New Cities.” Both Almere and Cancún are planned cities that were constructed in the 1970s, and the work draws out the disconnect between their utopic commercial visions and the realities of daily life. As digital images become increasingly ephemeral and disposable through the course of daily communication, *Hi Mom/Hola Mamá* offers a chance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temporality, emphasizing the material presence of images and their interconnections to memory and place.

a long time before a tree is a really a tree (2020) is a meditative and poetic work in which Siegel addresses and discusses his lif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specific places. The time-based work combines interior vignettes of Siegel’s apartment with additional footage shown through screens within the environment. Through his voiceover, Siegel reflects on ideas of newness and belonging and their role in defining both memory and the rhythms of daily life.

Like the shared experiences brought about by storms and extreme weather phenomena, Siegel’s work in *Tropical Depression* points to the relentless and inescapable systems of globalism that flatten and displace regional cultural traditions and disrupt individual notions of identity. Yet, Siegel’s inquiry emphasizes the human need for shared visual experiences even when they are rooted in newness or sameness rather than tradition or difference. While Siegel’s work often draws out the discontinuities of experience and identify within the ever-shifting contexts and fragmentation of modern life, he also offers new points of recognition, contemplation, and ultimately, connection.